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 굴이라고 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빛나고 불타오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첫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분명해집니다.

사자 굴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것인 분명해집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차이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나 물질, 내가 가진 지위나 지식이 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들이고, 사람은 내가 믿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알고 정말 내가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자 굴 같은 위기 속에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은 나의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해야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경험됩니다.

사자 굴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느끼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실상과 증거라고 알려 줍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더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기와 문제 속에서입니다. 똑같은 사자 굴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였고, 그를 참조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자 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셋째, 믿음의 증거가 분명히 보입니다.

사자 굴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많이 신뢰했지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자 굴을 통과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26~27절)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출 14-16	출 17-19	출 20-23	출 24-27	출 28-29	출 30-32	출 33-35

Q T

이번 주 QT 말씀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요 9:35-41	요 10:1-10	요 10:11-21	요 10:22-31	요 10:32-42	요 11:1-16	요 11:17-3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

3. 삶 속에 사자 굴 같은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기도해 주세요.